현불논단

학교폭력, 자비명상으로 대처하자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성장통 정도로 치부됐던 과거 학교폭력
현재는 폭력 내용들 복잡하고 '흉폭화'
교우 간 문제 아닌 학부모가 개입되며
부모 권력 따라 학생기록부 기재 영향

"모든 생명은 죽음과 폭력 두려워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폭력 경계해야
폭력은 비불교적… 삶 피폐화하는 범죄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의해 드러난 것은 학생들의 미소가 아니라 학교폭력의 민낯이었다.

최근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와 아빠찬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으로 학부모들의 학교폭력 근절 요구가 더욱 거세지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급기야 국회에서도 '사이버폭력 대응강화부터 피해학생의 보호까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과거의 학교폭력은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질풍노도 시기의 성장통으로 치부했다면, 작금의 것은 폭력의 내용이 복잡하고 흉폭하여 심각한 지경이다.

교우 간에 일어난 우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학부모가 개입되는 복잡한 사건이 되었다. 똑같은 폭력사건을 처리하는데 개인마다, 학교마다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고, 부모의 경제력과 권력에 의해서 대학입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주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폭 사건을 기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가정환경이 열악한 피해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입은 심리적 고통으로 같은 자리에 화살을 두 번 맞게 된다.

이러한 불만을 평등하게 해소하겠다고 학교장이 주관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2020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여기서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적 지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학교장의 책임 아래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학교 교칙에 따라서 지도하고 처벌하면 된다.

문제는 '더 글로리' 드라마에서처럼 문제 학생이 일진 써클을 만들어 상습적이고 계획적으로 고데기나 담뱃불로 신체의 일부를 지지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교육적 지도 차원을 넘은 범죄행위이다. 이런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 학폭 전문변호사, 상담사가 피해 사건을 심의하여 악질 가해학생은 경제적 피해배상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하고 보복 피해, 협박 등을 방지해야 한다. 폭력을 받는 피해학생은 평생 우울증, 불안, 좌절, 두려움 등의 고통을 겪는다.

근래 학교폭력의 추세는 신체적 폭력보다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통을 주는 부도덕성과 반인권성의 심각성에 대하여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회가 주최가 되어 고운 말을 사용하는 운동과 언어습관을 교육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폭력의 원인은 가정환경에 큰 영향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공격성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고, 분노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즉, 삼독심 때문이다. 삼독심을 없애는 길은 명상수행이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켜 지혜를 일으키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자비관법은 분노심을 없애준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큰 해악이니 다른 생명체를 해치거나 죽이지 말라.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채찍에 맞고 아프지 않는 자가 없듯이 자신에게 가해질 채찍질을 생각해서 남을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고 폭력의 해악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모든 폭력은 비불교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인간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범죄행위이다.

社說

상월결사 새 시작, '전법 합시다'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마무리되었다. 인도불교의 8대 성지중에서 7대 성지를 도보로 연결한 전대미문의 불사다. 상월결사는 '움직이는 불교, 활기찬 불교, 적극적인 불교'를 표방한다. 이 방법에서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로 나아간다.

부처님 나라 인도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부처님과 함께 호흡하고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며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보였다.

인도에서는 인도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었고, 인도정부의 불교성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약도 받아냈다. 순례단은 출재가자가 모두 도반이 되어 정진했고, 순례단에서 취재하는 이들이 감동하여 개종할 정도로 진실한 모습으로 한발 한발 나아갔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끝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불교의 소극적인 모습, 사찰로 찾아오는 이들에 대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가가는 불교로의 전환이다. 3월 23일 회향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전법합시다'는 외침은 불교사의 일대 전환점이 바로 인도순례임을 보여준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에서 발표된 108원력문에 근간하여 전법 포교를 위해 108배와 예불의식이 변화하고, 생활 속에서는 순례에 사용된 공양게 등이 활용된다. 청년 포교를 위한 적극적인 찾아가는 불교로 지역별 포교방법이 제시된다. 말로만 하는 불교가 아닌, 스님들부터 불자들이 모두 모여 대학, 가정을 방문하고, 초청하여 이들이 불교와 인연맺는데 앞장선다.

한국불교는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시작에는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있다. 전법 합시다.

인도도 불교 중흥 씨앗 뿌리내리길

불교가 태동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것에 대해 학계는 이슬람의 침입으로 인한 불교 파괴활동을 비롯해 △현학적 교리에 매몰돼 민중과 괴리 △불교의 힌두화 등을 꼽는다.

어디까지나 학설이지만, 여러 정황상 현재까지 제기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며 인도의 불교가 쇠퇴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불교는 인도 내 소수 종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상월결사 인도순례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불교문화교류행사를 통해서는 불교가 인도인의 심성(mentalité)임을 알 수 있게 됐다.

인도의 가장 하층계급인 불가촉천민은 자신들의 삶을 지키는 방편으로 불교공동체를 창립해 불교를 신앙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순례길 곳곳에서 꽃비를 뿌리며 확인했고, 몇몇 불교도들은 상월결사를 순례를 따라서 불교성지 순례를 시작하기도 했다.

3월 22일 인도 뉴델리 인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한국문화를 만나다' 특별전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연결고리가 바로 '불교'에 있음이 확인됐다. 실제 한국 음악과 드라마 등 한국문화에 익숙한 인도의 Z세대에게 한국불교는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불교문화교류행사들은 인도에 다시금 불교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데 국경이 있겠는가. 지금 한국불교의 전법원력이 인도 불교 중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오등동사지 발굴 이야기

음력 2월 초가 되면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아득한 바람의 궁전에서 제주를 찾는다. 영등할망은 보름 동안 제주의 땅과 바다에 풍요와 생명의 '씨 뿌림'을 한다. 그러면 복수초와 매화를 시작으로 동백 · 수선화 · 유채 등 바람의 꽃들은 기운을 차리고 그 향기를 강렬하게 내뿜는다.

봄바람이 살랑거려도 아직 꽃으로 피어나지 못한 기구한 사연을 가슴에 담아둔 씨앗들도 있다. 이번 오등동사지 발굴에 따른 이야기들이 그렇다. 우선 이번에 출토된 자기류 가운데 청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제주에서 흔치 않은 사례다. 제주불교의 문화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 청자는 전남 강진에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가마터에서 제작한 상위층 문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자를 소비할 만큼의 제주불교와 고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머물렀을 것이라 짐작된다. 어떤 인물일까?

그리고 이번 발굴에서는 북송시대에 제조된 동전 꾸러미도 일괄 출토됐다. 북송은 960년에서 1127년까지 중국에 있던 왕조다. 차례로 보면, 북송 진종 함평년간 (998년~1003년) 주조해 발행된 함평원보(咸平元寶)와 북송 인종 황송년간(1039년~1054년) 주조해 발행된 황송통보(皇宋通寶), 북송 영종 치평년간(1064년~1067년) 주조해 발행된 치평원보(治平元寶) 등이다. 특히 함평원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자바에서 주조했을 만큼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 화폐였다.

더불어 공주 신원사 오층석탑을 해체 복원(1975년)하는 과정에서 목이 긴 병과 함원통보, 황송통보가 발굴되었다. 그리고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유적 고려시대 대형 적심 건물지에서 치평원보가 출토(2013년)되었다. 이런 사례는 오등동사지 연구를 이들과 연관 지어 진행해볼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탐라)는 고려가 새롭게 한반도의 강자로 부상하면서부터 사신을 주고받았다. 탐라의 사신은 고려 국가축제인 팔관회에 참석했을 때도 송 · 여진과 함께 환대를 받았다. 탐라는 고려 초기까지는 사실상의 독립국이었다. 그러나 고려 조정이 지방 호족을 지배 체계에 편입시키며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해 나가자 탐라국 역시 차츰 지방 행정 단위로 편입되었다.

고려 이전에도 탐라는 국제교류가 활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주시 건입포 항구에서 발굴된 오수전이다.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산지항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던 중 오수전, 화천, 대천오십, 화포 등 중국화폐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이 화폐들이 사용되었던 시대가 오수전은 B.C118~621이고, 화천은 왕망이 만든 것으로 사용 시기가 아주 짧아 서기 14~40년에 불과한 것들이라 탐라국 초기에 활발한 해외 교역을 증명해준다.

이처럼 이번 오등동사지의 발굴은 불교문화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탐라사 특히 고려 중 후기 격변기의 역사를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는 개발과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역사의 씨앗을 다시 땅에 묻는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제주의 가장 큰 불교 유적인 수정사 터가 도시의 주차장으로 변모했고 그 유물들을 항파두리 야외와 박물관에 흩어 전시되고 있다. 따라서 옛 사찰 터의 발굴이 종교적 편향에 따라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 선래왓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